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

- ‘조선사회과학학술집(2009-)’을 중심으로 -

이 선 경 **

1. 서론
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 편찬의 방향: 김정일 시대의 유산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
3.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 양상
 - 1) 『조선문학개관』이라는 전환적 기원
 - 2) 항일혁명문학의 인민성 강조와 3대 세습
 - 3) 『주체문학론』의 정전(正典)화와 사실주의의 계보 확립
 - 4) 부르조아 근대성의 승인과 이데올로기 소설가 이광수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대규모 학술 전집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중 ‘문학편’에 나타난 최근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에 주목한다. 남한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역주식회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학술 전집은 김일성 탄생 100년 이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주체 101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북한 건국 이래 사회과학의 학문적 연구를 총괄한다는 목표로 1500권 분량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세부적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369).

** 백석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으로는 철학, 경제학, 법학, 언어학, 문학, 역사학, 혁명역사학, 민족고전학, 고고학, 민속학 등 총 10개의 학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완간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등 내부 사정으로 출판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9월 현재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는 통권 600권까지 입수되어 있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을 간행하는 사회과학원의 북한 체제 내에서의 역할이 당의 사상과 정책들을 학문적으로 옹호하고 연구하여 인민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할 때, 대규모 학술전집의 발간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가 놓인 학문적 기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입수되어 있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 600권 중 문학편은 총 70권이며, 이 중 해방 전 문학에 대한 단독 연구서는 총 9권이다.¹⁾ 본 연구에서는 이 9권과 더불어 학술집 수록 연구서들 중 부분적으로 해방 전 문학 연구와 관련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현재 북한의 해방 전 문학에 대한 연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 일변도의 문학사 기술로부터 탈피해 온 북한의 학문적 경향은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이르러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 체제에서 쌓여 온 문학예술 담론들이 집대성되는 맥락과 김정은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배경이 놓여있다. 또한 주체 100년(2011)과 강성대국 원년(2012)이라는 분기점을 기념하며 발간된 학술집은, 21세기에 북한 체제가 외부에 보여주는 3대 세습 국가의 학문적 정체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재인식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학문적 배경을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근현대 문학사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논의와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1989년 해금 직후 북한문학사에 대한 공동 연구인 민족문학사연구소의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1991)과³⁾ 이

1) 연구 대상인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문학편' 70권의 목록과 서지사항은 본문 뒤 <부록 -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 목록>을 참고.

2) 여기서 '해방 전 문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대와 현대의 용례는 남북한이 큰 편차를 보이기에 비교적 중립적인 '해방 전 문학'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맥락을 밝히고 근대와 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의 상황을 반영한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2014)이⁴⁾ 대표적일 것이다. 북한 체제 성립 이후 발행된 일련의 문학사들을 대상으로 고전과 현대 각 장르별 전공자들이 해당 분야를 담당했으며, 두 권의 연구서가 북한 문학사 기술의 통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방 전 대표적 작가에 대한 북한의 평가에 집중하거나,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선집 연구에도 주목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광수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금 직후 남북한의 이광수 연구를 비교대조한 김영민의 논의 이후로 황정현, 오태호 등이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김영민은 남북한 양자의 이광수 연구사 검토를 통해 북한에서 이광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배제되었던 것에서 1986년 『조선문학개관』과 『조선 근대및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이후로 부분적 인정으로 변하게 된 흐름을 포착한다.⁵⁾ 황정현은 북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광수 연구사의 변모를 검토하는데, 여기서도 1986년의 『조선문학개관』은 부르죠아 계몽주의의 시대적 역할을 인정하게 된 중요한 변화의 지점으로 다루어진다.⁶⁾ 오태호는 북한의 이광수 논의를 『무정』에만 한정하여 그 복권 과정과 더불어 『개척자』가 우세하게 평가되는 2000년까지의 상황을 분석한다.⁷⁾ 한편, 문학 선집 출판에 주목하는 후자에 대해서는 오무라 마스오와 유문선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오무라 마스오는 1987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대상으로, 1986년의 『조선문학개관』 발행과 일련의 전환점들이 해방 전 작가와 작품 수용의 폭을 넓혔음을 밝힌다.⁸⁾ 유문선은 ‘현대조선문학선집’ 중 1920~30년대 시 선집 6권을 대상으로, 1986년경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1991년 이래 발행되기 시작한 『조선문학사』의 영향이 수록 작품 선정에 연관이 있음

3) 민족문학사연구소, 1991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4)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2014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5) 김영민, 1994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학지』 83.

6) 황정현, 2016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

7) 오태호, 2017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8) 오무라 마스오, 2016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윤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을 분석한다.⁹⁾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해방 전 문학에 대한 평가와 수용이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며, 20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문학편을 중심으로 이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특성과 문학편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 제시의 의미와 더불어,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인식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 편찬의 방향: 김정일 시대의 유산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수록 ‘문학편’ 연구서 70권을 주제와 출판 사항으로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 1〉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의 구성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의 구성

주제	수량	출판 사항	초·재판 연도
주체문예론	34권	초판 9권 재판 25권	초판 - 2010년대 9권 재판 - 60년대 1권 / 80년대 11권 / 90년대 8권 / 2000년대 4권 / 2010년대 1권

9) 유문선, 2007 「최근 북한 근대 문학사 인식의 변화: 『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

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체육 분야에 한 편(김영만 외, 2017 「북한의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나타난 맨손무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5)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통무예에 주목하는 이 연구에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자체의 특징과 의미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고전문학	19권	초판 14권 재판 5권	초판 - 2000년대 2권 / 2010년대 12권 재판 - 50년대 1권 / 2000년대 4권
해방 전 문학	9권	초판 8권 재판 1권	초판 - 2000년대 2권 / 2010년대 6권 재판 - 90년대 1권
현대문학	6권	초판 2권 재판 4권	초판 - 2010년대 2권 재판 - 80년대 2권 / 2000년대 2권
문학사	2권	초판 0권 재판 2권	재판 - 80년대 2권
계	총70권	초판 총33권 재판 총37권	50년대 1권 60년대 1권 80년대 15권 90년대 9권 2000년대 14권 2010년대 30권

연구 주제별로 보자면 주체문예론 34권, 고전문학 19권, 해방 전 문학 9권, 현대문학 6권, 문학사 2권 순으로 그 분야를 세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절반가량이 학술집 수록을 위해 집필된 초판본(총33권)들이다. 재판본이라고 하더라도 두 권(50년대 1권, 60년대 1권)을 제외하고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것들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0년대(14권)와 2010년대(30권)에 집필된 연구서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을 김정일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문학예술 연구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선 주제의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주체문예론 관련 연구서들이 학술집 구성의 절반에 가까우며, 고전문학 관련 연구서는 그 나머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모두 김정일의 문학예술 지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1964년 직후부터 문학예술 부문의 실권자로서 권력 기반을 구축해 았고, 주체사상을 문예에 적용하여 이론화 하는 것으로 그것을 공고히 했다. 특히 1980년대말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 등에 직면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민족 주체의 정립을 위하여 고유의 문

화유산을 계승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¹¹⁾ 특히 학술집 간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학원이 김정일의 체제에서 학문적 기반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왔기에, 김정일의 업적을 집대성하려는 목적을 가늠할 수 있다.¹²⁾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학술집의 연속 기획 연구서들이다. 연속 기획물들 중 현재까지 분량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학연구론문집’과 ‘조선고전작가론’ 시리즈다. 현재 13권까지 발행된 ‘문학연구론문집’ 시리즈는 음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학예술 장르를 포함하며 김정일 주체문예론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하거나 재수록한다. 현재 8권까지 발행된 ‘조선고전작가론’ 시리즈는 삼국시대부터의 작가 연구를 토대로 김정일의 민족문화유산 발굴의 정신을 이어간다.

또한 출간 연도의 구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편 70권 중 44권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출판된 것들이며, 그 중 33권은 학술집 발간을 위해 집필된 초판본들이다. 재수록 연구서들 중 50년대와 60년대 간행 자료들은 각각 한 권씩에 불과하며, 80년대 중후반부터 간행된 연구서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김정일의 문예 분야에서의 지도는 주로 이론서들의 발간을 통해 주체문예론을 정립하는 것과, 이에 따라 직접 예술 현장에서 실무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이론서들은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출판되었고 그 중 완결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주체문학론』(1992)이다.¹³⁾ 즉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문학편은 김정일의 주체문예론의 주요 부분들을 강조하거나, 이를 바탕

11)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174면, 184-186면.

12) 사회과학원은 1964년 2월 17일 기존의 과학원(1952년 12월 1일 창립)에서 사회과학 부문만을 분리한 단체로,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연구, 발전, 보급해 왔다. 그 역할은 김정일 시대에서 보다 강화되는데, 김일성 사망하던 해인 1994년 초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계간지 『사회과학원학보』를 통해 사회과학원 각 분야의 학술적 성과들이 발표되어 오고 있다. 『사회과학원학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김정일의 영도에 감사를 표한다. 1993년 11월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사회과학원의 연구성과들을 국내외학계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당의 령도밑에 《사회과학원학보》가 걸어온 자랑찬 10년’, 『사회과학원학보』 2004년 특집호(루계 제45호), 3면]을 기본임무로 하여 출간된 『사회과학원학보』가 주체사상을 보급선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3) 김정일의 주요 주체문예 이론서들에는 『영화예술론』(1973),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 『무용예술론』(1990), 『음악예술론』(1991), 『건축예술론』(1991), 『미술론』(1991) 등이 있으며, 『주체문학론』은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선, 앞의 책, 177면, 211면).

으로 진행된 이후의 작업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전 문학에 대해서도 김정일 지도 이후 그간 몇 차례의 변화가 지적되었고,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은 학술집 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10년까지 활발하던 학술집의 출간은 김정일 사망을 전후한 2011년을 기점으로 잠시 저조한 양상을 보인다. 2011년에는 총13권, 2012년에는 총10권이 출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김정은 체제에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은 다시 활발한 출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12년 말 김정은이 사회과학원에 보낸 한 장의 서한이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치 첫 해의 연말이자 김정일 사망 일 년쯤 되는 지점이기도 한 2012년 12월 1일, 김정은은 사회과학원 창립기념일에 축하 서한을 보낸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1(2012)년 12월 1일]』라는 제목의 서한은 소책자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¹⁴⁾ 이 서한에서는 향후 사회과학원의 나아갈 길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제시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시대가 선대를 계승하는 방식으로,¹⁵⁾ 사회과학원 역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서 개척자와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함이 요구된다. 서한을 수령한 직후에 출간된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1호에서는 이 서한이 권두에서부터 몇 편의 논문을 통해 강조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실천을 강령적 지침으로 삼을 때 사회과학연구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릴 수 있으며,¹⁶⁾ 이

14) 김정은, 2012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101(2012)년 12월 1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5)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란, 김정은이 등장 초기부터 내세웠던 주체사상의 김정은식 재해석이다. 이는 향수로 체제 7년이 된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며, 이제는 북한에서 본격적인 학술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최초로 언급된 2012년 4월 6일의 담화문에 대한 해설집(김화종 외, 20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 대한 해설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이 출간되었으며, 이를 본격적 대상으로 한 연구서(김현환, 2016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입문』, 평양출판사)도 찾아볼 수 있다.

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 근본원칙이자 총적방향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¹⁷⁾

그리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제시된 이후 발간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연구서들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를 통해 김정은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학술적 업적을 기념하는 현정적 성격의 연구서들이 학술집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통권 300권에서이다. 김정일 사망 두 달 후인 2012년 2월 25일 발행된 『300권 - (철학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의 머리말에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사회주의의 건설이 김정은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언급이 등장한다.¹⁸⁾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사회과학원에서 김정은 체제로의 학술적 승계를 시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김정은으로의 승계나 체제적 정당화를 위해 비택적으로 김정은이 삽입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449권 - (혁명력사학편) 불멸의 업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서는 1987년 초판본을 2013년 12월 30일 재출간한 것인데, 학술집 수록본의 머리말과 맷음말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있다. 1987년 초판 단행본의 경우, 김일성의 탄생일을 기념하며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머리말의 주요 내용이고, 이를 김정일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맷음말의 주요 내용이었다.¹⁹⁾ 그러나 2013년의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재판 발행본의 머리말과 맷음말은 선대의 혁명업적을 김정은이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²⁰⁾ 또한 『539권 - (문학편) 새 세기 선군혁명문화

16) 리혜정, 2013 「주체적사회과학발전의 앞길을 활짝 열어놓은 불멸의 대강」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1호(루계 제78호), 12면.

17) 류제일, 2013 「주체적사회과학건설의 근본원칙, 총적방향」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1호(루계 제78호), 15면.

18)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폐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 리성철 · 리만렬 · 강설경, 2012 『300권 - (철학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 사회과학출판사, 3면.

19) 전홍식, 1987 『불멸의 업적』, 조선로동당출판사, 4-6면, 606-607면.

20)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쌓아올리신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위

의 『발전면모』에서는 문학예술 분야에서 삼대 세습에 의미를 가지는 경희극 『산울림』 논의에 김정은이 비맥락적으로 삽입된다.²¹⁾ 김일성 시대에 창작되었던 경희극 『산울림』(1961)은 90년대와 2000년대 김정일 지도하에서 대중화 된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또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이었던 2011년 3월과 7월 김정일과 김정은이 동시 관람한 것으로도 재차 의미가 부여되었다.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의 발전면모』의 ‘3장.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시대적 화폭창조’에서 『산울림』 논의의 마무리에 비약적으로 김정은의 영도를 강조하는 것은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승계와 그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이 계획해 놓은 학술집 발간에 김정은의 자취를 남기는 것을 통해 새 시대에서의 유훈 수행을 보여준다.

한편, 김정일에 대한 헌정적 성격을 보이는 연구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 발행되었던 통권 100권과 200권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상징성이, 김정은 집권 직후 출간된 300권과 400권에는 김정일에 대한 헌정의 상징이 부여되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 출간된 300권은 김정일에 대한 조사(弔詞)이자 최초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김정은이 등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00권은 김정일의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주요 가치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연구서이기도 하다.²²⁾ 『400권 - (문학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 문

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였으며 오늘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있으며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중략) 우리는 일편단심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어온것처럼 김정은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같이하는 제일동지가 되어 주체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 전홍식 2013 『449권 - (혁명력사학편) 불멸의 업적』, 5면.

21) 리병간 · 강은별, 2015 『539권 - (문학편)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의 발전면모』, 사회과학 출판사, 380면.

22)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인류의 진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대표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문예사상과 리론으로 완성되게 하시였으며 (후략)”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문학예술의 영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발전하여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릴 것이다.”

- 사회과학원 주체문화연구소, 2013 『400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제목에서부터 김정일 시대에 대한 현정임을 분명히 하며, 문학예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집필진들이 김정일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머리말과 첫 논문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계승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완성”했다고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김정은이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김정일에 대한 애도와 현정, 그 유훈 관철을 표명하는 것은 김정은의 승계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김정일 시대를 과거로 만들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새 시대 개막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학술집의 문학 연구 양상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3.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 양상

1) 『조선문학개관』이라는 전환적 기원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문학편 중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서들은 아래의 〈표 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중 해방 전 문학 관련 연구서 목록과 같다. 부록에서 다른 주제로 분류되었더라도 부분적으로 해방 전 문학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한다.

〈표 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중 해방 전 문학 관련 연구서 목록

통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세부 주제	주요 내용
8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	류만, 유춘희	2009 초판	사실주의문학	• 카프의 전개 과정, 비평 논쟁, 장르별 주요 작품, 문학사적 의의 서술
9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 (1901-1945)	한중모	2009 초판	해방 전 문학사 (문예비평)	• 해방 전 문예비평사의 전개를 ‘부르죠아문학론’과 ‘프로레타리아문학론’이 대립하는 과정으로 기술
64	조선비판적사실	한중모	2010	사실주의문학	• 해방 전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

통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세부 주제	주요 내용
	주의 문학연구		(1996 초판)		생 발전 과정과 조선적 특징을 다룸
70	문학연구론문집 1	고철훈, 김철민	2010 (2001, 2002 초판)	사실주의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혁명시인 리찬의 창작과 그의 시문학」 수록(2002년 초판) 해방 전 리찬의 카프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서의 의의 지적
71	조선문학개관 1	정홍교, 박종원	2010 (1986 초판)	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시대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문학사를 서술
147	조선문학개관 2	박종원, 류만	2010 (1986 초판)	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6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문학사를 북한 체제 위주로 서술
197	문학연구론문집 4	엄영일, 오향숙	2010 초판	사실주의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강경애창작연구」 수록 강경애를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작가로 분류
358	해방전 진보적희곡연구	김용철	2013 초판	진보적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방 전 희곡 작품들의 발전과정을 진보성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그 주제, 인물형상, 극 조직 등을 분석
371	문학연구론문집 9	석금철, 길영수	2010 초판	진보적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해방전 진보적풍자문학연구」 수록 해방 전 진보적 성격의 풍자문학의 전개 과정과 대표작들을 분석
398	조선근대소설사	한중모, 심경섭	2013 초판	해방 전 문학사 (근대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소설사를 문학적 근대성을 기준으로 기술
423	항일의 전구에 올려펴진 태양 칭송의 메아리	리룡득, 서재경	2013 초판	항일혁명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일혁명 시기의 수령송가문학(시가, 설화) 자료를 수록한 문학선집
541	문학연구론문집 11	서재경	2010 초판	항일혁명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 논문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4권이 『문학연구론문집』 11과 12에 나누어 수록 『문학연구론문집』 11에는 1, 2권이 수록, 1권은 '총론', 2권은 '항일혁명시가자료집'
542	문학연구론문집 12	조웅철, 김선영	2010 초판	항일혁명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연구론문집』 11에 이어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3, 4권이 수록, 3권은 '항일혁명극문학자료집', 4권은 '항일혁명설화자료집'

이들 중 우선 통권 71권과 147권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문학개관』 1, 2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986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된 것을 재수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가 놓인 원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²³⁾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듯, 『조선문학개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문학사 기술이 전환점을 맞이한 표지 중 하나이다.²⁴⁾ 김일성과 주체사상 일변도의 편파적 문학사 서술에서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이다. 항일문학 이외의

23) 『조선문학개관』 1권은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를 다룬며, 2권은 1926년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이 시작된 때부터 주체사상 수립 직후까지를 다룬다. 1926년 10월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건설과 그에 따른 항일혁명문학의 발생은 현대문학의 맹아가 짹트고 주체사회주의문학이 열린 서막이었기에, 1926년부터 1967년 직후까지가 별개의 2권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권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항일혁명문학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領導밑에 창조발전된 항일혁명문학의 탄생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학사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였다. 항일혁명문학이 탄생함으로써 조선문학은 진정한 인민의 문학, 참으로 혁명적인 료동계급의 문학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고귀한 터전우에서 새 조선의 친란한 문학예술이 꽂펴났다."

- 정홍교 · 박종원, 2010 『71권 - (문학편) 조선문학개관 1』, 사회과학출판사, 6면.

24) 민족문학사연구소의 공동연구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에서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문학사 기술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방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대표적으로 오창은(「북한의 1927~1940년대 전반 '현대'소설사 서술: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갈등과 화해의 도정」)은 1986년의 『조선문학개관』에서 북한의 근대문학사 서술이 개방적인 정후를 보이다가, 1995년의 『조선문학사』 9권에 이르러 근대문학에 대한 포용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해방 전 대표적 작가인 이광수에 집중하는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잘 드러난다. 남북한의 이광수 문학 연구를 비교하는 김영민(1994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학지』 83)의 연구에서는 『조선문학개관』이 부르조아 문학을 인정한 획기적 변화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근대문학사 기술에 주목하는 황정현(2016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은 1986년 『조선문학개관』과 같은 해에 출간된 은종섭의 『조선 근대 및 현대 소설사 연구』(198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를 토대로 1986년이 이광수 문학을 중심으로 한 부르조아문학을 재인식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오태호(2017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 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역시 황정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복원이 1986년의 『조선문학개관』에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의 『주체문학론』(1992)에 이르면 이광수의 문학을 북한의 문학사에 정당하게 편입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해방 전 문학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인정했으며, 특히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부르죠아문학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반동 일색으로 매도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 계몽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문학개관』을 시작으로 그간 배제되었던 과거의 문학유산을 수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현대조선문학선집’(1987-)과 『조선문학사』(총16권, 1991-2012)가 이에 해당한다. 1987년부터 간행된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그동안 북한문학사에서 배제되었거나 매도되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수록된다. 본 연구의 범위인 해방 전 문학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전까지 북한문학사에서 비판과 폄하 일색이었던 이인직, 이광수를 비롯한 소위 부르죠아 문인들의 작품이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권으로 간행된 『조선문학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에는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과거 문학 유산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진다. 해방 전 문학 서술 역시 항일혁명문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 『조선문학개관』을 재수록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하에서 진행된 변화의 흐름을 원점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김정일에 대한 현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400권 - (문학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이를 더욱 확증하게 한다. 여기에 수록된 박길남의 논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그간 추측되기만 했던 1986년 이후 문학사 복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무라 마스오의 기존 연구는 신문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근대문학에 대한 평가 지침이 변화했음을 짐작한 바 있다.²⁶⁾ 이러한 사항들이 박길남의 논문에서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박길

25)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조선문학사』 8, 9권이다. 두 권은 각각 1926년에서 1945년 사이의 문학을 병행적으로 서술한다. 『조선문학사』 8(류만, 1992 사회과학출판사)에는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이 서술되어있고, 이로부터 3년 후에 발행된 『조선문학사』 9(류만, 199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는 항일혁명문학 이외의 문학에 대한 문학사가 서술되어 있다. 항일혁명문학의 전통이 유지되면서 여타 문학의 조류들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양상이다.

남의 논문은 김정일이 민족문학예술을 빌굴, 수집, 정리한 데 대한 공로를 평가하고 인정한다. 특히 김정일이 ‘현대조선문학선집’ 체계에 관여하여 『계몽기소설집』 1-5, 『1920년대시선』 1-2, 『1930년대시선』 1, 『1920년대희곡선』 등에 세심한 지도를 한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²⁷⁾

이러한 김정일 지도의 맥락을 이어가면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는, 가장 최근의 북한의 입장은 대변하는 『조선문학사』(1991~2012)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을 보여준다. 다음의 각 절을 통해 『조선문학개관』을 기원의 지점으로 하여 이로부터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 보여주는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일혁명문학의 인민성 강조와 3대 세습

유일사상 성립 이후 북한의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과 이로 인한 항일혁명문학은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자, 문학사 전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불가역적이며 혁명적인 사건으로 치부된다.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으로까지 항일혁명문학의 기원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신화적 전통을 만들고, 이를 제외한 동시기 다른 문학들은 한동안 종속적으로 서술되거나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확고한 전통으로, 『조선문학개관』(1986)이나 『조선문학사』 8(1992), 9(1995)권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와서 그 서술의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는데, 그것은 항일혁명문학의 강조점이 수령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 놓인 3대 세습의 맥락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서 항일혁명문학을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서는 총3권이다.²⁸⁾ 이를 중 연구서의 성격이 강하여 『조선문학개관』, 『조선문

26) 오무라 마스오, 2016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윤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459-461면.

27) 박길남, 201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400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192면.

학사』 8과 비교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학연구론문집』 11, 12의 경우부터 살펴본다.

『문학연구론문집』 11, 12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집필된 「주체 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4권이 연속 논문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문학연구론문집 11』에는 '1권. 총론'과 '2권. 항일혁명시가자료집'이 실려 있으며, 『문학연구론문집 12』에는 '3권. 항일혁명극문학자료집'과 '4권. 항일혁명설화자료집'이 실려 있다. 『조선문학개관』, 『조선문학사』 8,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4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항일혁명문학 서술의 중점이 수령 창작과 영도로부터 점차 인민 창작과 인민 역할 강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조선문학개관』에는 인민 창작 항일혁명문학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목차만 놓고 보더라도 김일성이 창작한 혁명시가와 극문학의 작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문학개관』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 시가와 극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에는 김혁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일성의 창작 (시가 《조선의 노래》, 극문학 《성황당》, 《꽃파는 처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전부가 김일성 창작(시가 《조선인민혁명군》, 극문학 《피바다》, 《한 자위 단원의 운명》)을 목차로 이 시기를 설명한다. 인민 창작의 항일혁명문학은 각 부분에서 부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조선문학사』 8에 와서 항일혁명문학은 『조선문학개관』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인민 창작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범주를 넓힌다. 전체 구성은 '제1편.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혁명적문학'과 '제2편.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문학'으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 안에, 시문학, 극문학, 동화 등의 장르 구분을 중심으로 주요 작품들이 제시되어 있는 형태이다. 『조선문학개관』에서 목차화 되었던 모든 작품들과 더불어 김일성의 창작이 몇 편 더 추가되어 있다.²⁹⁾ 그러면서 『조선문학사』 8에서 눈에 뜨

28) 이 절에서 살피게 될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항일혁명문학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 리룡득 · 서재경, 2013 『423권 - 항일의 전구에 올려펴진 태양 칭송의 메아리』
- 서재경, 2010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 · 2, 『541권 - 문학연구론문집 11』
- 조웅철 · 김선영, 2010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3 · 4, 『542권 - 문학연구론문집 12』

이는 것은 각 부분에 인민 창작 항일혁명문학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⁰⁾ 또한 2편 가장 마지막 장인 '2.6. 항일혁명투쟁을 반영한 인민창작'은 전체가 인민 창작 항일혁명문학을 조명하고 있다. 항일혁명문학의 범주를 넓히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오면 더욱 확장된다. 인민 창작 문학이 종속적이거나 부차적이었던 앞의 두 문학사에 비하여, 『문학연구론문집』 11, 12에 수록된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4권에서는 인민 창작 작품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1권은 총론으로, 기존의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설명과 차이를 보인다. 이제 더 이상 항일혁명문학의 기원과 출현에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항일혁명문학은 수령에 의해 창조, 발전된 문학이기는 하지만 기존 문학사들처럼 수령 창작 작품들을 목차로 내세우지도 않는다. 오히려 1권에서 유일하게 목차화 되어 있는 작품은 인민 창작 송가문학의 시원인 김혁의 『조선의 별』이다. 또한 '3장. 수령형상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은 항일혁명문학'은 별개의장을 할애하여 인민 창작의 항일혁명

29) 『조선문학개관』보다 추가로 목차에 포함된 김일성의 창작에는, 첫시기에는 시문학 《사향가》, 극문학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3인1당》, 《딸에게서 온 편지》,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극문학 《경축대회》가 있다.

30) 『조선문학사』 8에서 인민 창작만을 다룬 항일혁명문학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3.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혁명시인 김혁
- 1.1.4. 반제혁명사상과 전투적감정의 다양한 구현
- 1.2.5. 착취사회를 폭로하고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투쟁의 길을 밝힌 혁명적극작품
- 2.4.4. 인민주권건설에 대한 열렬한 지향의 시적일반화
- 2.4.6. 각계각층 인민들을 통일단결과 투쟁으로 부르는 다양한 시적형상
- 2.4.7. 구호문헌-시에 반영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
- 2.5.6. 각계각층 인민들의 계급적각성과정과 투쟁을 반영한 혁명적극작품
- 2.5.7. 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을 반영한 혁명적극작품
- 2.6.장 항일혁명투쟁을 반영한 인민창작
 - 제1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우러러 높이 칭송한 인민창작
 - 제2절. 백두광명성을 우러러 칭송한 전설들
 - 제3절.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위력을 반영한 인민창작
 - 제4절. 일제침략자들의 폐망상을 폭로조소한 인민창작
 - 제5절. 항일혁명투쟁을 반영하여나온 인민창작의 중요특징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최초의 경우로, “항일혁명문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가 바로 수령형상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은데 있다”는³¹⁾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어지는 2, 3, 4권에서 인민 창작의 항일혁명문학을 기술하는 근간이 된다. 주로 수령형상 창조를 위주로 제시되는 인민 창작의 항일혁명문학 작품들은, 장르별로 구성된 각 권에서 수령이 창작한 항일혁명문학과 동등하게 제시되거나 오히려 더 비중 있게 제시된다. ‘2권. 항일혁명시가자료집’의 총5장 중 4장이 인민 창작 항일혁명시가에 대해서 다루며, 이것의 세부 장르로 혁명가요, 혁명시가, 인민가요 등이 제시된다. ‘3권. 항일혁명극문학자료집’에는 수령 창작 혁명극(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유격대원 및 인민 창작 혁명극(2.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에 의하여 창작된 혁명적극작품)이 동일한 비중에서 제시된다. 그리고 ‘4권. 항일혁명설화자료집’은 전체가 “인민구전문학의 하나인 항일혁명설화”에³²⁾ 대한 것이며, 주제별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인민혁명군의 영웅적 위용의 반영, 혁명승리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 일제에 대한 풍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서 항일혁명문학의 인민성이 중시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술집 통권상으로는 『문학연구론문집』 11, 12보다 선행하는 『423권 - (문학편)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태양 칭송의 메아리』(리룡득·서재경, 2013)는 일종의 문학선집으로, 전체가 인민들에 의해 창작된 수령형상 항일혁명문학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두 필자가 항일 혁명 전적지의 인민들로부터 수집한 김일성 칭송 주제의 구전 혁명시가와 설화를 수록한 작품집이다. 각 작품마다 전달자, 수집자, 수집 장소, 수집 경위 등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이 구전이기에 김혁의 「조선의 별」처럼 알려진 전문 작가가 창작한 것이 오히려 몇 안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책이 놓인 맥락을 통해 인민 창작의 항일혁명문학이 강

31) 서재경, 2010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1」 『541권 - (문학편) 문학연구론문집 11』, 76면.

32) 조옹철·김선영, 2010 「주체문학의 만년재보 항일혁명문학 4」 『542권 - (문학편) 문학연구론문집 12』, 227면.

조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의 도입부에는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태양청송의 메아리》에 대하여」라는 소개의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김정일의 지적은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송가문학과 백두산 전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김정일선집』 12, 428면)”이다. 김일성을 칭송하는 항일혁명문학을 다루면서 동시에 그 배경은 백두산이다. 수집된 항일혁명문학들은 수령을 칭송하는 동시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 희망, 신념을 보여주고, 이는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전으로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철저히 객관성과 진실성이 보장”(22면)되어 있다는 것이 해설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소개 글의 마무리로 이러한 고귀한 전통이 김정일의 유훈을 받든 김정은 시대까지도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³³⁾

결국 이 책에는 김일성의 백두산 항일 활동을 칭송하는 인민들의 창작들이 김정은 시대까지 구전되고 향후에도 이어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통치 초반 백두 혈통을 통해 권력을 정당화 한 김정은 체제의 배경이 놓여있는 것이다. 백두산은 북한의 신화적 권력 만들기의 중심이다. 김일성의 항일혁명 전적지로서의 미화,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 김정은의 백두 혈통 강조 등이 모두 백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³⁴⁾ 인민성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민 생활 향상은 김정은 체제 시작부터 부여되었던 과제이며,³⁵⁾ 여전히 매년의 신년사에서 강조되는 가치이기도 하다.³⁶⁾ 즉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 보여주

33) 리룡득 · 서재경, 2013 『423권 - (문학편)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태양청송의 메아리』, 23면.

34) 김창희, 2017 「북한의 백두 혈통을 위한 역사 만들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1, 149-171면.

35) 정영철, 2012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16-1, 17-20면.

36) 아래 인용한 2018년의 신년사에서와 같이 여전히 인민 생활 향상은 중요한 가치이다. 인민 생활 향상은 전년도의 과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새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올해 사회의 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 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

는 항일혁명문학의 인민성 강조는, 김정은 시대의 맥락에서 3대 세습의 정통성과 정당화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학술집 통권의 순서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이 단독 연구서로 제시되는 가장 첫 번째 책은 인민들의 항일혁명문학 작품집인 『423권 -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태양 칭송의 메아리』(리룡득·서재경, 2013)이다. 그리고 『문학연구론문집』 11, 12는 이미 2010년에 인쇄,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41권과 542권으로 출간된다. 이는 ‘문학연구론문집’ 시리즈 안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는 총 10개의 학문 분야가 망라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출간이 진행되기에, 학술집 통권의 순번과 발행일이 순차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의 학문 분야 안에서, 그것도 연쇄되어 있는 시리즈 연구서들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학연구론문집’ 시리즈의 11, 12만은 출간 순서가 이례적으로 뒤로 배치되어 있다. ‘문학연구론문집’ 시리즈는 2010년 4월 1권이 발행되기 시작해서 (2권이 1권에 비해 1개월 뒤늦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5일 동시 발행된 『문학연구론문집』 11권과 12권은 순서상으로라면 2010년 9월 25일 발행된 『문학연구론문집』 6권(통권 239권) 바로 뒤에 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학연구론문집』 7권(통권 262권)이 2010년 12월 25일에 발행된다. 이미 인쇄된 연구서가 뒤늦게 발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여러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승계가 진행되고 있었고,³⁷⁾ 항일혁명문학을 제시하는 것도 김정은 시대의 맥락 혹은 적어도 김정일 시대의 맥락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나타난 항일혁명문학의 맥락 변화는 3대 세습 각 단계에서의 특이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 김정은, 2018 『김정은 신년사 - 주체107(2018)년 1월 1일』, 조선로동당출판사, 7면.

37) 김정은은 2009년 1월 8일 그의 생일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이후 본격적인 승계 절차가 진행되었다(김창희, 앞의 논문, 166면).

3) 『주체문학론』의 정전(正典)화와 사실주의의 계보 확립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에 있어서 분량상으로나 중요도에 있어서 중심에 놓인 것은 사실주의 문학이다.³⁸⁾ 여기에는 1992년 1월 20일 발행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전제되어 있다. 『주체문학론』의 2장 ‘유산과 전통’은 해방 전 문학 연구에 빈번히 근거로 인용된다. 항일혁명문학을 유일한 전통으로 고수하면서도, 민족문화유산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를 상정함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었던 과거의 문학예술 유산에 대해서 수용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주체문학론』 출간을 전후하여 집필된 북한의 문학사 혹은 문학 연구서들은 이를 반영하여 개방적이고 객관적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조선 사회과학학술집은 기존의 문학 연구서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실천하며 이를 정전(正典)화 한다.³⁹⁾ 특히 사실주의 계보 확립에 있어서 『주체문학론』의 행간을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재정립하고, 비판적 사실주의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진보적 문학사 안에서 장르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8) 이 절에서 다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수록 사실주의 문학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 류만·유춘희, 2009 『8권 -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
- 한중모, 2010 『64권 -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
- 김철민, 2010 「혁명시인 리찬의 창작과 그의 시문학」 『70권 - 문학연구론문집 1』
- 오향숙, 2010 「강경애창작연구」 『197권 - 문학연구론문집 4』
- 김용철, 2013 『358권 -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
- 석금철, 2010 「해방전 진보적풍자문학연구」 『371권 - 문학연구론문집 9』

39)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방 전 사실주의문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카프’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은 카프를 혁명전통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프를 비판적사실주의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카프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이후에 나온 작품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명확한 규정을 내린다. 당의 령도는 받지 못하였으나 인민의 민족감정과 지향에 맞는 형식과 높은 사상예술적 차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강경애의 『인간문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가치나 신경향파를 포함한 비판적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 역시 과제로 제시된다(김정일, 2009 『주체문학론(1992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출판사, 57면, 73-76면).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은 이러한 『주체문학론』의 방침과 과제 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먼저 『주체문학론』 적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범주를 확장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카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리찬의 초기 활동과 강경애의 소설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발행된 류만과 유춘희 집필의 『8권 - (문학편)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체문학론』의 지침에 따라 카프의 문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사조’를 형성한 것으로 정립한다. 여기에 학술집 수록 『조선문학개관』, 가장 최근의 사회과학원 발행 문학사인 『조선문학사』 9,⁴⁰⁾ 카프에 대한 단행본 연구서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⁴¹⁾ 등이 참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점 모두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자 중 한 명인 류만과 관련이 깊은데, 류만은 『조선문학개관 2』와 『조선문학사』 9권의 집필자이자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의 심사자이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문학개관』은 카프를 적극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1910-1920년대 전반기의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과 1926년~1945년 사이에 발생한 진보적 조류의 문학에 결성 사실과 일부 작가와 작품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조선문학개관』보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카프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선문학사』 9와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에서 카프를 논의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들과 학술집 수록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카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이다. 『조선문학사』 7의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 안에서 결성 사실이 언급된 카프는, 『조선문학사』 9에서 결성 이후의 활동이 제시된다. 9권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을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한다. 이 시기 주류인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프로레타리아문학, 진보적문학, 그 외 여러 조류의 문학이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카프는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며,⁴²⁾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의의는 적극적으로 등장하

40) 류만, 1995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41) 김학렬, 1996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2) 류만, 1995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3-27면.

지 않는다. 카프가 주도하는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 전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실주의발전의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거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며⁴³⁾ 창작방법론 차원에서만 카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적 성격이 지적되는 것이다. 김정일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카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기여가 일부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카프를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분류하는 ‘어정쩡한’ 평가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카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 소재 조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교 교수 김학렬에 의해서이다. 김학렬의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는 프로레타리아 문학 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카프에 대한 연구이다. 김학렬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를 통해 카프의 활동과 작품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그러나 카프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조선문학사』 9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카프를 프로레타리아문학 혹은 진보적문학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성격 역시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류만과 유춘희의 학술집 수록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는 김학렬의 연구서와 서술 순서와 강조점, 세부 내용 면에서 상당히 닮았다.⁴⁴⁾ 그러나 카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카프의 의의를 제시하는 결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와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의 결론 비교

김학렬,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에 나타난 카프의 의의 (228-230면)	류만·유춘희,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에 나타난 카프의 의의 (165-168면)
1.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사조 형성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사조 형성
2. 일제하 인민들에게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부여	2. 해방전 진보적문학발전 주도, 인민들에게 계급의식과 반일의식 교양

43) 위의 책, 27면.

44) 통시적 전개과정으로부터 장르별 작품 분석으로 나아가는 구성, 평론 부분을 강조하여 따로 목차화 한 것을 비롯하여, 각 부분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세부 사항 면에서도 상당히 비슷하다. 두 책의 장과 절의 목차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학렬의 책은 항별 세부 목차까지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어, 일치하는 부분만을 기재한다).

3. 부르죠아문학의 반동성폭로	3. 부르죠아문예조류와의 투쟁
4. 해방후의 발전에 진보적문학유산을 마련	
5. 세계 프로레타리아문학, 진보적문학, 국제현대 성강화에 이바지	4. 세계프로레타리아문학 발전, 국제현대성강화에 이바지

〈표 3〉『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와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의 목차 비교

김학렬,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의 주요 목차 머리말	류만, 유춘희,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의 목차 머리말
I.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발생 발전과 문학단체의 활동 1.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 발생의 배경 2. 프로레타리아문학단체들의 출현 3. 『카프』의 결성 4. 『카프』의 재조직 5. 『카프』의 해산, 그 위치와 성격	제1장. 『카프』 결성이전시기 프로레타리아 문학단체들
II.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 1. 1921~1926년의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 1) 계급문화론(반부르죠아문학론) 2. 1927~1929년의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 1) 내용-형식론 2) 목적의식론(방향전환론) 4) 반민족주의문학론 3. 1930년대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 4) 창작방법론	제2장. 『카프』의 조직과 활동 제1절.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 프』)의 조직 제2절. 『카프』의 재조직, 신강령의 채택과 활동의 강화 제3절. 『카프』의 기관지와 출판활동 제4절. 『카프』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해산
III. 프로레타리아문학작품 1. 소설문학 2. 시문학 3. 극문학 4. 프로레타리아문학작품의 사상미학적특징 맺는말(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의의와 제 한성)	제3장. 『카프』의 문학평론 제1절. 문학의 계급성에 대한론의 제2절.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론의 제3절. 『카프』의 방향전환에 대한론의 제4절. 계급문학론과 민족주의문학론과의 론쟁 제5절. 창작방법에 대한론의
부록	제4장. 『카프』의 문학작품 제1절. 소설문학 제2절. 시문학 제3절. 극문학 제5장. 『카프』의 의의 제1절. 『카프』 문학과 사회주의적사실주 의 사조의 형성 제2절. 『카프』의 결성과 그 활동이 가지 는 의의

양자가 정리하는 카프의 의의는 단어와 표현에 다소의 차이만 있을 뿐 순서까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김학렬의 저서에 나타난 '4. 해방후의 발전에 진보적문학유산을 마련'한 카프 문학의 의의가 류만과 유춘희의 연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류만과 유춘희의 저서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2. 해방전 진보적문학발전 주도, 인민들에게 계급의식과 반일의식 교양'일 것이다. 김학렬은 전반적으로 카프를 프로레타리아문학이라는 포괄적 범주 안에서 전달하면서 해방 후까지로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 해방 전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이 해방 후 진보적 문학 유산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류만과 유춘희의 연구서는 '카프'로 그 명칭과 대상을 특정하면서 해방 전으로 그 의의를 한정한다. 그러면서 카프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사조를 형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류만과 유춘희의 연구는, 카프를 '어정쩡'한 정체성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체문학론』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카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세부 내용과 자료 면에서는 참신한 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결국 『주체문학론』의 충실한 실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리말의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연구 성과에 토대하면서" "《카프》의 업적과 가치를 정당하게 해설론증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집필하였다."는 말의 심층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 발간의 방향성이기도 한, 김정일식 주체문예론의 실천과 완성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서 카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서의 의의가 강조되는 예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0권 - (문학편) 문학연구론문집 1』의 후반부에 실린 논문 「혁명시인 리찬의 창작과 그의 시문학」(김철민, 2002년 작재수록)에서 북한의 대표적 시인 리찬의 카프 활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개관 2』에 나타나는 리찬의 해방 전 활동은 카프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을 시로 창작했지만, 세계관의 미숙성과 일제의 견열로 주제사상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⁴⁵⁾ 리찬이 문학사적 의의를 가

지는 것은 해방 후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1946)를 창작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문학연구론문집 1』에서는 리찬의 카프 시절의 성장과 활동에도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리찬이 무산계급적 의식을 갖게 된 것에는 카프 재조직 이후의 영향을 받은 데 있으며, 이것이 그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을 발전케 했다는 것이다.⁴⁶⁾ 이는 카프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형성에 끼친 영향과 범주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사조의 확장은 강경애의 작가론에서도 이어진다. 강경애는 『조선문학개관』까지 조명희, 리기영과 더불어 진보적 프로레타리아 작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조선문학사』 9권에 이르면 리기영, 한설야와 더불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작가로 정립된다. 그러나 『조선문학사』 9는 이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주제화 하지는 않는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이르러서야 강경애의 문학사적 지위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197권 - (문학편) 문학연구론문집 4』의 후반부에는 「강경애창작연구」가 실려 있는데, 강경애 창작의 문학사적 지위를 언급하는 마지막 절(3.3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의의가 강조된다. 그리고 강경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해 있었다는 전제가 뒤따른다.⁴⁷⁾ 혁명전통은 되지 못하지만, 맑스-레닌적 세

45) 박종원 · 류만, 2010 『147권 - 조선문학개관 2』, 83-85면.

46) 김철민, 2010 「혁명시인 리찬의 창작과 그의 시문학」 『70권 - 문학연구론문집 1』, 170-171면.

47) “장편소설 《인간문제》는 맑스-레닌주의사상을 기초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운명에 대한 문제, 계급적해방에 관한 문제에 예술적해명을 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 해방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였다면 주체사실주의는 세계관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참답게 복무한다. 당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학을 창조하자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해야겠으나 작가는 그것을 알수없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한것, 여기에 바로 장편소설 《인간문제》의 진보성이 있고 또한 그 제한성의 요인이 있는것이다.”

- 2010 「강경애창작연구」 『197권 - 문학연구론문집 4』, 358면, 365면.

계관의 영향하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주체문학론』의 충실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문학론』의 지침을 실천하는 사실주의 논의의 또 다른 방향은,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정립이다.⁴⁸⁾ 『64권 - (문학편)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한중모, 2010)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선행하는 비판적사실주의의 위치를 정립함과 동시에, 조선적 사실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서의 내용과 더불어 집필자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중모는 북한의 체제 형성기인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사실주의 논쟁에 참여했던 원로 평론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서는 과거의 논의들을 환기하면서 그것을 주체문예론의 입장에서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⁴⁹⁾ 과거의 논쟁점은 주로 사실주의와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 기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⁵⁰⁾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판적)사실주의의 조선 민족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조선의 문학에 나타나는 사실주의란 유럽과는 달리 봉건사회 전 기간에 걸쳐 낭만주의 문학과 병행 교차되면서 발전했다는 것에 그 특수

48) 『주체문학론』의 2장에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사실주의의 재정립을 위한 지침도 언급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발전문제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풀어야 한다. (중략)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선행한 사실주의문학보다 높은 전형화의 수준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지만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는데 그치고 그 사회적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올바른 출로를 제시하지 못한다”(김정일, 2009 앞의 책, 76-77면).

49) 아래 인용된 ‘머리글’에서부터 이러한 의도는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논의를 김정일의 주체문예론을 통해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문예학계에서는 이미 195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생발전에 관한 학술적문제의 한 고리로서 비판적사실주의문제가 연구,론의되었으며 그 과정에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중략) 이 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해방전의 우리 나라 근대 및 현대문학에서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었던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의 역사적과정과 그 특징에 대하여 연구서술하였다”(한중모, 2010 『64권 -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 3면).

50)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북한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토론집)』: 1963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토론회』(1989 사계절)’이 대표적이다.

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과거 사실주의의 기원에 관한 쟁점들이 정리된다. 12세기 후반기-14세기에서부터 그 조건과 가능성이 주어진 우리 문학의 사실주의는, 근대에 와서 사회역사적 조건하에서 본격적으로 비판적사실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나아간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비판적사실주의 문학의 형상과 주제 차원에서의 특수성 역시 지적된다.⁵¹⁾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판적사실주의가 강조되는 맥락을 알 수 있다. 소위 ‘조선적’ 사실주의의 특성이 여기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럽과 다른 독자성, 식민 하에서 발전한 비판성과 진보성은 ‘주체적문예사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⁵²⁾ 학술집의 문학편 수록 연구서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 → 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로의 발전과정은 여러 번 강조된다.⁵³⁾ 이러한 발전 도정은 사회주의 문학사에서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은 그 안에서 조선적 특수성 강조를 통해 『주체문학론』이 제시하는 사실주의의 계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주의 사조의 계보 확장은 진보적 장르 문학사의 기술로 나아간다. 진보성의 논리는 역사적 합법칙성 속에서 반동성에 맞서는 혁명적 사상을 의미하며, 시대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다. 문학 내에서만 하더라도 진보적 문학, 진보적 작가, 진보적 기법 등 사용 범위가 다양하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1)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의 후반부에는 총 4개의 절을 통해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의 소설 내적 특징이 유형화 되어 있다. Ⅱ.1. 가난한 인민들의 형상과 빈궁문제의 제기, Ⅱ.2. 식민지반봉건사회현실의 반영과 빈일민족의식의 표현, Ⅱ.3. 풍자적형상과 비판의 예리성, Ⅱ.4. 역사에 대한 문학적재현과 사회현실의 비판’이 이에 해당한다.

52) 북한의 비판적사실주의 논의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 리동수의 단행본(리동수, 1988 『우리 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역시 참고할 수 있다. 한중모 연구의 방향과 내용은 리동수와 닮은 측면이 많다. 그러나 학술집 수록 한중모의 연구는 ‘조선적’ 특징이 강조되어 있다는 데에서 주체문예론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53) 이는 사실주의를 다루거나 문학사 형태를 띤 연구서들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체문예이론을 다루는 책에서도 강조되는 사항이다. 한 예로 『문학연구론문집 5』(2010)에 실린 「문학예술에서의 진실성」(한수은, 2010)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학예술의 진실성의 정도에 따라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발전사가 규정된다. 그러면서 ‘비판적사실주의 → 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의 역사가 진실성의 합법칙적 단계임을 강조한다.

의 문학편 연구서들에서는 진보성의 논리를 사실주의의 계보에 대입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358권 - (문학편)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김용철, 2013)와 『371권 - (문학편) 문학연구론문집 9』에 수록된 「해방전 진보적풍자문학연구」(석금철, 2010)가 이에 해당한다. 김용철의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는 머리말에서 해방 전의 진보적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사실주의의 전개 과정으로 통시적으로 정리한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된 초기 근대의 진보적 희곡이 비판적사실주의문학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⁵⁴⁾ 석금철의 「해방전 진보적풍자문학연구」는 1900년대초부터 1940년대초 사이의 진보적 풍자 작가들과 작품들을 서술한다. 희곡과 소설을 위주로 구성된 이 연구는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와 마찬가지로 애국문화계동운동기, 1920년대 비판적사실주의, 카프의 재조직 이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의 도정에서 나타나는 풍자의 경향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각되지 못했던 장르들로까지 진보성의 논리를 통해 사실주의의 계보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⁵⁾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주체문학론』에서 내려진, 비주류적 장르인 극문학과 풍자문학 등에도 주력하라는 지침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⁵⁶⁾ 또한 문학적 진보성의 논리와 사실주의의 전개 과정을 동일시하면서, 주체사실

54) “해방전 진보적희곡은 민족문학예술유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극예술의 사명과 기능을 계몽주의적관점에서 둔한 글들이 출판물지면에 발표되는 가운데 연극과 분리된 초기근대희곡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해방전 진보적희곡은 그후 비판적사실주의문학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전하였다.”

- 김용철, 2013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 6면.

55) 기존 연구들을 통해 그간 북한의 희곡사 기술이 매우 빈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문학사의 구도를 만족시키는 몇 작품만을 선별한 형국이어서 역사적 전개를 갖추지 못했고, 극작술이나 형식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다[유문선, 1991 『1926~1945년의 희곡』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창작과비평사, 361-362면 참고].

56) “극적사변으로 충만된 우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시, 소설, 아동문학과 함께 극문학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략) 풍자문학도 발전시켜야 한다. (중략)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긍정감화의 방법이 기본이라고 하여 풍자문학이 필요없는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의 정세는 풍자문학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 김정일, 2009 앞의 책, 249면.

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의 통시적 계보로 논의를 확장하려는 민족문화 유산 강조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4) 부르조아 근대성의 승인과 이데올로기 소설가 이광수

마지막으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해방 전 문학 연구에서 근대성과 근대문학 정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일혁명문학이 유일한 전통이자 현대문학의 단초였던 것으로 인하여, 북한의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근대문학이나 현대문학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극히 절제되어 있었다고 지적되었다.⁵⁷⁾ 그러나 실상은 개념화가 덜 되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근대와 현대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근대성과 현대성,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이라는 기준이 스스로 취약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환적 지점인 『조선문학개관』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최근의 문학사인 『조선문학사』 7(200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은종섭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연구인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 연구』(198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시기 구분과 소설 양식 사이의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성이 제시되기는 했지만,⁵⁸⁾ 이러한 논의가 사회과학원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광명백과사전』(2008 백과사전출판사) ‘6권 문학예술’ 편에서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의 개념 정의가 내려진 것은, 2000년대를 지나며 여기에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

57) 진경환·신두원, 1991 「문학사의 시대구분」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민족문학사연구 소 지음), 창작과비평사, 73면.

58) 근대와 현대라는 시기 구분으로 해방 전 소설사를 서술하고 있는 이 연구서에서, 당시까지 북한 학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근대소설과 현대소설 구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은종섭은 ‘중세-고전소설, 근대-신소설, 현대-현대소설’이라는 당시까지의 도식은 시대 구분과 소설 양식이 불일치하는 모순이 있다며 비판한다. 당시 학계의 ‘현대소설’의 범위에는 1910년대의 「슬픈모순」, 「절교의 서한」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현대 시기에 탄생한 것이 아니기에 시기와 소설양식이 불일치하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은종섭은 근대소설의 범위를 신소설로부터 1910년대 소설로까지 넓히는 것으로 해결한다(은종섭, 1986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93-95면).

졌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연구서들에서는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명확히 분리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근대와 현대의 개념적 구분 아래 집필된 장르별 문학사들이 존재한다.⁵⁹⁾ 그리고 여기서의 문학적 근대성은 부르죠아 근대성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해방 전 문학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수용하는 기반이 된다.

우선 『조선문학개관』과 『조선문학사』 7에 나타나는 혼란의 양상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의 문학사 인식에 있어서 시기상으로나 양식상으로나 신소설이 근대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남한과 같은 맥락에서 이 시기를 근대로 가리켜 문명개화와 반봉건의 의미로 근대화를 사용하며, 문학 양식상으로도 구성과 형식면에서 중세와 달라진 면모를 지적하기 때문이다.⁶⁰⁾ 그러나 시기적으로 근대인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전반기 사이의 문학이 때로는 현대성이거나 현대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때가 있다. 이광수와 현진건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조선문학사』 7에서 이광수는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⁶¹⁾ 또한 현진건에 대해서는 평론 「조선의 현대정신의 파악」(1926 『개벽』)에 등장하는 현대문학과 현대정신의 관계를 논하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를 통해 현진건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⁶²⁾ 그러나 『조선문학사』 7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현진건의 「조

59) 이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 다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수록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 한중모, 2009 『9권 - (문학편)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 (1901-1945)』
- 한중모 · 심경섭, 2013 『398권 - (문학편) 조선근대소설사』

60) 신소설의 근대성은 남한과 비슷한 맥락이다. ‘근대적 문명개화’, ‘반봉건적인 근대개화사상’과 같은 용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인용과 같은 맥락에서 신소설의 근대성이 논의된다.

“《혈의루》와 《은세계》는 신교육, 신결혼관 등 근대적인 개화사상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친일적이며 반인민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2010 『71권 - 조선문학개관 1』, 311면).

61) 류만, 2000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9면.

62) “현진건의 이러한 창작적전환, 사상발전에 대하여서는 그가 잡지 《개벽》 1926년 1월호에 발표한 『조선의 현대정신의 파악』이라는 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중략) 조선문학인 다음에야 조선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서야 할 줄 안다. 현대문학인 다음에야 현대정신을 힘있게 호흡해야 할 줄 안다고 (중략) 썼다. 여기에는 작가 현진건의 진보적인 문학관과 사실주의적인 창작태도가 표현되어 있다”(『조선문학개관 1』 343면).

선의 현대정신의 파악」을 인용함에 있어서 현대성을 논의한 부분의 인용(“현대 문학인 다음에야 현대정신을 힘있게 호흡해야 할 줄 안다”)이 중략된 채 다음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과 현대성 개념 정립에 고민의 흔적이 엿 보이는 부분이다. 이후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오면, 어떤 연구서에서도 현진건의 이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연구서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 작가로서 현진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세한 논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대성 논의의 삭제는 현진건을 근대 작가로 분류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서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더 이상 혼란을 보이지 않게 된 것에는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기에 완전한 기준이 생겨서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광명백과사전』(전20권, 2006-2011 백과사전 출판사)이다. 김정일이 직접 표제를 붙인 『광명백과사전』은 자모순으로 된 일반적 백과사전이 아니라 각 지식분야 별로 분류된 개념어 사전이다. ‘6권 문학예술’ 중 문학 부분에는 문학의 발전 역사가 시기별(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개념, 사조, 주요 작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근대문학은 19세기 후반기에서 1920년대 전반기까지 나타난 것으로, 근대문학에 속하는 것으로는 신소설, 1910년대 부르죠아계몽주의적 경향의 문학, 반일애국적 경향의 문학, 현실비판적 경향의 문학,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이 해당된다.⁶³⁾ 현대문학은 1920년대 후반기에 민족해방투쟁을 목표로 창조된 항일혁명문학을 시작으로 이 영향하에 있던 진보적 문학을 포함한다.⁶⁴⁾

이러한 개념 정립의 안정성 아래 탄생한 것이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다. 조선 사회과학학술집에는 문학편 이외에도 역사학편, 철학편 등에서도 ‘근대’라는 용

63) “19세기 후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세문학과 구별되는 근대문학이 발생발전하였다. 근대문학은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대한 지향을 구현하고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는 역사적현실을 반영하였다.”

- 2008 ‘근대문학’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101면.

64) “우리나라에서의 현대문학은 1920년대 후반기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 혁명문학으로부터 시작된다.”

- 2008 ‘현대문학’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109면.

어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명확한 시대 구분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편에서는 한중모 집필의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2009)와 한중모와 심경섭 집필의 『조선근대소설사』(2013)가 이에 해당한다.^{65)⁶⁶⁾}

우선 한중모 집필의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와 현대 모두를 제목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연구서는 해방 전 문예비평에서 프로레타리아적 근대성과 부르죠아적 근대성만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항일혁명문학을 기점으로 하는 현대성 논의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서는 해방 전 문예비평사를 부르죠아 문예사조와 프로레타리아 문예사조의 대립과 투쟁의 전개 과정으로 파악한다.⁶⁷⁾ 양자 모두 “주체적 립장”에 서지 못 한 한계를 보여주지만, 프로레타리아 문예비평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길을 열어 준 진보적 긍정성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부르죠아 문예비평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과 반동성을 밝히는 것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부르죠아 문예비평은 초반에 근대적 비평을 열어주고 계몽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그 반동적 성격이 강화된다. 특히 1930년대 모더니즘 문예비

65) 앞서 지적한 것처럼 두 연구서의 공통된 저자 한중모는 북한 체제 형성기의 사실주의 논쟁에서부터 모습을 보였던 원로 연구자이다. 두 연구서는 2009, 2013년의 초판본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집필자의 연로함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시점에서 집필이 되었고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연구가 한 개인의 독자적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두 연구서의 의미를 북한의 최근 경향으로 분석하는 것에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66) 『조선근대소설사』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수록되기 직전인 2013년 3월 30일에 단행본으로 먼저 발행되었다. 학술집 수록 『조선근대소설사』의 발행일은 2013년 6월 20일이다.

67)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 각 장의 목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부르죠아 문예사조와 프로레타리아 문예사조의 대립과 투쟁을 강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1장. 근대문예비평의 시발과 초기의 부르죠아문학론

제2장. 잡다한 반동적부르죠아문학론의 류포, 그 반사실주의적본질과 퇴폐성

제3장. 프로레타리아문학론의 출현과 부르죠아문학에 대한 폭로비판

제4장. 프로레타리아문예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한론의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제5장.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창작방법문제에 관한론의

제6장. 예술지상주의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각종 부르죠아문예사조의 창궐과 그 반동적본질

평을 둘러싼 부르죠아 문예비평은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챕터인 ‘제6장. 예술지상주의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각종 부르죠아문예사조의 칭궐과 그 반동적본질’은 해외문학파, 구인회, 주지주의, 초현실주의 등 ‘모더니즘’ 문예비평에 대한 비판이다. 이 부분에서 부르죠아 문예사조가 시대착오적, 사대주의적, 반동적 성격을 가지게 된 주된 원인은 유럽의 근대문학을 조선적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⁶⁸⁾ 유럽적 근대성은 조선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인류의 진보를 막는 퇴행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대주의적 근대성은 주체적 현대성으로 극복되어야 했다는 것이 이 연구서의 결론이다. ‘맺는말’에 주장과 언급만으로 등장하는 현대성이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하에서 식민지 조선 민족의 현실을 진보적인 발전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라 역설된다.⁶⁹⁾ 이러한 편파적 근대성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난과 매도의 상태로라도 부르죠아 근대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조선근대 소설사』(한중모·심경섭, 2013)는 해방 전 문학의 양립 가능한 근대성들을 바탕

68)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해외문학파의 외국문학 수용과 최재서의 모더니즘 수용은 대표적인 부르죠아 근대성 비판이다.

“요컨대 《해외문학파》의 문학적견해는 발전한 외국의 근대적인 문학사상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였기때문에 (중략) 외국문학작품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시된다는데 귀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문학이란 유럽의 근대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럽의 근대문학을 번역소개하여 그 문학사상의 직접적영향을 받아서 조선문단에 생신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해외문학파》의 주장은 그야말로 유럽중심주의사상에 빠져 제정 신을 읊은 부르죠아문학인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낙두리의 표본이다.”

“그가 말하는 《레알리즘》은 객관적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방법으로서의 사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중략) 최재서의 이러한 견해와 주장은 인류진보적문학의 주도적 흐름을 이루고 여러 세기에 걸쳐 발전하여 온 사실주의에 대한 혹심한 외곡과 모독인 동시에 현대부르죠아문학을 부패타락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몰아 넣은 모더니즘에 대한 미화분식이며 합리화이다.”

-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 222면, 240-241면.

6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주시대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인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문학예술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현대문예비평,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비평의 혁신적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 ‘맺는말’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 267면.

으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조선근대소설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학적 근대성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그 것을 서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는 “근대소설이 발생발전하는 역사적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을 포착하여 장을 설정하고 서술”한다고⁷⁰⁾ 그 목표와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총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연구서의 각 장은 근대소설의 발전 단계를 따라 설정되어 있다. ‘근대적인 소설’(제1장. 근대적인 소설의 발생)에서 ‘초기근대소설’(제2장. 초기근대소설의 갈래와 그 사상 예술적특성)을 거쳐 ‘근대소설’(제3장. 근대소설의 본격적발전과 비판적사실주의 문학사조의 형성, 자연주의소설의 대두)이 완성되는 것이다. 각 단계에 속하는 소설 사조 역시 명확하다. ‘근대적인 소설’에는 신소설과 역사전기소설이, ‘초기 근대소설’에는 부르죠아계몽주의소설, 현실비판적경향의소설, (신채호의) 랑만주의소설이 포함되며, ‘근대소설’에는 비판적사실주의소설과 자연주의소설이 속하게 된다.

『조선근대소설사』에서는 문학적 근대성과 문학적 현대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다음 인용된 이해조와 신채호에 대한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소설 《화의 혈》의 서언에서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것은 생활묘사의 사실주의적성 격에 대한 지적이다. (중략) 당시의 형편에서 형상창조의 사실주의적특성을 강조한 것은 소설발전의 근대적 추세에 맞는것이다.”

“소설(신채호의 《을지문덕》을 가리킴)은 (중략)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룩하는것이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있던 당시의 사회역사적요구에 맞게 현대성을 뚜렷이 구현하였다.”

- 『조선근대소설사』, 29면, 88면(밀줄, 강조, 편집: 인용자).

『조선근대소설사』는 신소설 창작에서 이인직보다 이해조의 소설을 더 높이 평가하고 따로 절을 구분하여 서술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해조에게 근대소설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화의 혈』 서언에서 이해조가 보여주는 사실주의적 성격에서 문학적 근대성을 발견한다. 이해조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문학적 근대성이란 당시의 애국계몽적 문학이 보여줄 수 있었던 사실주의

70) 한중모 · 심경섭, 앞의 책, 5면.

적 문학관이다. 그러는 한편, 신채호는 근대적인 소설(제1장)과 초기근대소설(제2장) 모두에서 따로 절을 설정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이는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과 낭만주의소설이 각 시대의 흐름으로 편입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전기소설에서부터 신채호는 현대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학적 근대성이란 사실주의로의 도정에 놓인 진보의 첫 단계인 것이고, 현대성이란 당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항일의 목표를 보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해조의 근대성이나 신채호의 현대성과는 다른 맥락에서 『조선근대소설사』는 이광수의 근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근대소설사』에서 이광수 문학의 의의는, 앞선 시기 문학사와 비교해 볼 때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조선문학사 7』)에서, “근대적인 소설양식을 확립하고 현대소설에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조선근대소설사』)으로 변경된다.⁷¹⁾ 여기서 『조선근대소설사』가 이광수를 근대성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1901-1945)』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부르죠아 근대성의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서에서 이광수는 북한 체제 성립 이후 가장 적극적이고 다면적으로 승인된다.

북한 체제 성립 초기 배제되거나 부르죠아 반동으로 매도되었던 이광수는 점차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가장 최근까지는 부르죠아 작가로서 시대에 대한 제한적 기여가 인정되었고, 대표작은 1917년의 『개척자』로 평가되었다.⁷²⁾ 남한에서

71) 다음과 같이 양자를 비교해 보면 둘의 차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리광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로서 초기에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하여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 작품을 썼으며 그의 소설들은 우리 나라 현대소설을 개척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 『조선문학사』 7, 129면.

“리광수는 창작활동의 첫 시기부터 신소설과 구별되는 많은 소설작품들을 창작발표하여 새로운 근대적인 소설양식을 확립하고 현대소설에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조선근대소설사』, 101면.

72) 은종섭의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 소설사 연구』(1986)와 역시 은종섭이 『현대조선문

의 기준 연구도 이를 반영하여 북한문학에서 이광수의 복권이 부르죠아 ‘반동’ 작가에서 부르죠아 ‘계몽’ 작가로 변모했고,⁷³⁾ 『무정』보다 『개척자』가 북한문학에서 더 중시된다는 것⁷⁴⁾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와서 이광수는, 부르죠아 근대성의 승인과 더불어 1910년대 문학 활동 전반이 주목되며, 이에 따라 『무정』과 『개척자』 모두 부르죠아계몽사상을 구현한 당대의 ‘이데올로기 소설’로서 인정받게 된다.

우선, 『조선근대소설사』는 1910년대 이광수의 문예논설도 중요하게 다룬다. 남한에서 이광수의 1910년대를 다룰 때 중시되는 「문학의 가치」, 「문학이란 하오」, 「현상소설고선여언」 등이 중점적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논설들이 부르죠아계몽주의의 인식교양적 측면으로서 진보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광수가 본격적 문학활동을 시작한 1910년은 근대소설로의 이행에 있어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⁷⁵⁾ 이 지점에서 그간 비판적사실주의 위주의 1910년대 문학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종전의 문학사에서 이광수 문학에 가장 개방적이었던 은종섭은,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소설사연구』(1986)에서, 현상윤의 「한의 일생」이 등장한 1914년을 근대소설의 기원으로 본다. 비판적사실주의가 1910년대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근대성과 이광수의 1910년을 인정하

학선집 8 - 개척자』에 쓴 해설 「장편소설 『개척자』와 작가의 창작에 대한 고찰」(1991),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 류만과 리동수의 『조선문학사』 7(2000) 등에서 점차 이광수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져왔다. 은종섭은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소설의 형태론적 관점에서, 1910년대 이광수가 대중을 반일독립운동으로 이끌고 문학적 묘사와 표현에서 전진을 보여주고 있음을 긍정한다. 김정일은 민족문화유산의 측면에서 『개척자』를 중심으로 한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문학이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였음을 인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문학사』 7도 『개척자』의 의의를 강조한다.

73) 황정현, 2016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

74) 오태호, 2017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75) “우리 나라에서는 1910년을 계기점으로 하여 신소설로부터 부르죠아계몽주의적 성격의 근대소설로의 이행과 교체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중략) 1910년대 부르죠아계몽주의적 성격의 소설의 발생발전에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리광수였다.”

- 『조선근대소설사』, 99-100면.

게 되면서 ‘초기근대소설’은 부르죠아계몽주의, 현실비판적 경향의 소설, 신체호의 낭만주의 등 세 개의 중심을 통해 다양성 안에서 평가된다. 그리고 이것은 남한의 1910년대 소설사 기술과도 공명하는 지점이 있기에, 한반도의 해방 전 문학을 통합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이광수의 대표작 역시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무정』이 『개척자』와 더불어 동등한 중요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조선근대소설사』는 이 두 장편에 한 챕터를 할애한다. ‘2.1.2.부르죠아계몽사상의 문학적 표현 - 장편소설 《무정》과 《개척자》’가 이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근대소설의 효시라 평가되는 『무정』이 북한에서도 이광수의 대표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정』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간 북한문학에서 『무정』이 언급된 가장 객관적 사례는 은종섭에 의해서였는데,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 소설사 연구』에서 『무정』은 “유산청년들의 3각련애”가 중심이 된 “반동적 측면”을 가진 소설로 소개된다.⁷⁶⁾ 그러나 『조선근대소설사』에 와서 이광수의 작가적 의도에 따라 『무정』은 『개척자』와 더불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신사상’을 표현한 “이데올로기 소설”로 규정되며, 연애서사보다 외국 유학서사와 민족 교육 의지가 중점인 소설로 평가된다.⁷⁷⁾ 더불어 『조선근대소설사』는 『무정』과 『개척자』에 대한 상세한 작품 분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부차적 요소들도 주목받게 되는데, 조국광복과 반일민족의식의 가능성은 지닌 『무정』의 박진사와 『개척자』의 전경이 적극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점, 당시 조선사회현실의 모순과 악덕을 폭로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균절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한 제한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근대소설사』는 1910년대 이광

76) 은종섭, 1986 앞의 책, 140-142면.

77) “리광수의 밀그대로 장편소설 《무정》과 《개척자》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소설》로서 평론 《현상소설고선여언》에서 밝힌 《신사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 《신사상》은 리광수의 말을 따르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수 있는데 다른 말로 부르죠아계몽사상이라고 특징화할 수 있다.

장편소설 《무정》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주인공 리형식이 김선형, 박영채, 김병욱 등 세 녀성과 함께 외국류학을 가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중략) 《무정》의 기본문제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데 대한 문제이다.”

- 『조선근대소설사』, 111-112면, 114면.

수의 언문일치의 문체와 계몽주의의 진보성을 근거로 문학적 의의를 인정한다. 이처럼 그간 배제와 비판 일변도였던 이광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점차 남한과 합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이 해방 전 문학을 재인식하는 양상을 고찰했다. 김정일 체제하에서 강성대국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은 그 과업을 김정은 체제로 넘기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예론을 집대성하면서 과거의 문학예술 유산이 김정은 체제에 맞게 재맥락화 되는 상황이, 문학편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이 놓인 위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북한의 유일한 문학 전통인 항일혁명문학이 3대 세습 과정을 거치면서 수령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1926)은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인 동시에 북한 체제의 기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김일성 창작의 소위 불후의 혁명적 고전들은 북한문학을 지배하는 일종의 신화적 전통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제 항일혁명문학 전통은 기원 그 자체로서보다는 3대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민이 세습 권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목상으로라도 제시해야 하기에, 인민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항일혁명문학과 백두산 혈통 관련 구전(口傳) 문학 등이 가시화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김정은 체제의 인민 향상 담론들과도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

두 번째는, 김정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립한 주체문예이론들이 정전(正典)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의 행간을 충실히 확장하여 해방 전 사실주의 문학 계보를 확립해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주체사실주의에만

집중해왔던 북한의 문학사는, ‘비판적사실주의 → 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라는 발전적 통시성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명확하게 한다. 이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의 문학편이 김정일 체제하에서 성장한 문예이론들의 적극적 실천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르죠아 근대성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 해방 전 문학에서 가장 신랄한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광수의 문학이 이데올로기 소설로서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객관성과 개방성을 보여 오던 이광수에 대한 평가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이르러서 1910년대의 문예논설, 장편소설 『무정』과 『개척자』 등이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것으로 긍정된다. 이는 사실주의 문학적 맥락의 근대성과 부르죠아 문학의 근대성이 동시에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연구가 한반도의 해방 전 문학 연구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간 해방 전 문학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가치와 평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체제와 담론의 변화로 점차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확장되고 있다. 향후 양자 간의 비교대조를 통해 한반도의 해방 전 문학에 대한 근대성과 현대성을 고민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북한문학, 해방 전 문학, 근대문학, 김정일, 김정은, 주체문학, 항일혁명문학, 사실주의 문학, 부르죠아 문학, 근대성, 이광수

투고일(2018. 7. 31), **심사시작일**(2018. 8. 9), **심사완료일**(2018. 8. 31)

〈부록〉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문학편’ 목록

순번	통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주제
1	7	현목자 홍만종의 문학유산연구	김세민	• 초판 발행 • 주체98(2009)년 11월 25일	고전문학
2	8	《카프》와 그 활동에 대한 연구	류만, 유춘희	• 초판 발행 • 주체98(2009)년 11월 25일	해방 전 문학 (문예사조)
3	9	조선근대 및 현대문예비평연구 (1901-1945)	한중모	• 초판 발행 • 주체98(2009)년 11월 25일	해방 전 문학(비평)
4	10	고려한자시문학	리성	• 초판 발행 • 주체98(2009)년 11월 25일	고전문학 (시)
5	56	주체의 예술리론	윤종성	• 1판 주체78(1989)년 2월 16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30일	주체문예론
6	64	조선비판적사실주의 문학연구	한중모	• 1판 주체85(1996)년 5월 25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8일	해방 전 문학 (문예사조)
7	65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1	한중모	• 1판 주체89(2000)년 2월 28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8일	주체문예론
8	66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2	김정웅	• 1판 주체76(1987)년 1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10일	주체문예론
9	67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3	한중모, 김정웅, 김준규	• 1판 주체81(1992)년 5월 18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25일	주체문예론
10	68	종자와 작품창작	김정웅	• 1판 주체76(1987)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10일	주체문예론
11	69	시대와 문학예술형태	정성무	• 1판 주체76(1987)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25일	주체문예론
12	70	문학연구론문집 1	고철훈, 김철민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4월 10일	주체문예론 /현대문학 (시)
13	71	조선문학개관 1	정홍교, 박종원	• 1판 주체75(1986)년 11월 15일 • 2판 주체99(2010)년 6월 25일	문학사
14	94	새문학건설	김하명	• 1판 주체82(1993)년 5월 20일 • 2판 주체99(2010)년 6월 25일	주체문예론
15	104	주체적언어리론연구	최정후, 박재수	• 1판 주체88(1999)년 8월 17일 • 2판 주체99(2010)년 6월 8일	주체문예론
16	116	우리 생활과 언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 1판 주체52(1963)년 12월 30일 • 2판 주체99(2010)년 6월 5일	주체문예론

순 번	통 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주제
17	119	주체적음악리론연구 1 (주체의 가요예술)	횡지철	• 1판 주체79(1990)년 4월 15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10일	주체문예론
18	120	주체적음악리론연구 2 (우리 식의 무용, 연극 및 교예음악, 주체적음악연주)	박동식, 권용하, 김득청	• 1판 주체80(1991)년 2월 16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8일	주체문예론
19	121	주체적 음악리론 연구 3 (작곡가와 우리 식 음악창작)	김두일	• 1판 주체78(1989)년 2월 16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9일	주체문예론
20	122	문학연구론문집 2	최경수, 김용세 외 6명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3월 15일	주체문예론
21	125	조선중세시조사연구	박길남	• 1판 주체94(2005)년 5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7월 10일	고전문학 (시)
22	128	문학연구론문집 3 (명가요창작리론,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	김준규, 합덕일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3월 28일	주체문예론
23	130	화곡창작수업	강진	• 1판 주체82(1993)년 6월 16일 • 2판 주체99(2010)년 7월 10일	주체문예론
24	131	우리 시문학의 운율연구	리수립 외 4명	• 1판 주체82(1993)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4월 30일	주체문예론
25	132	주체적 음악리론 연구 4 (주체적 음악예술의 혁명전통)	리하윤	• 1판 주체80(1991)년 4월 15일 • 2판 주체99(2010)년 7월 10일	주체문예론
26	143	주체의 창작리론연구	류만, 김정웅, 정성무	• 1판 주체71(1982)년 3월 20일 • 2판 주체99(2010)년 5월 5일	주체문예론
27	145	문학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방연승 외 6명	• 1판 주체76(1987)년 4월 15일 • 2판 주체99(2010)년 7월 5일	주체문예론
28	147	조선문학개관 2	박종원, 류만	• 1판 주체75(1986)년 11월 25일 • 2판 주체99(2010)년 7월 5일	문학사
29	155	주체음악과 인간학	김두일	• 1판 주체98(2009)년 9월 25일 • 2판 주체99(2010)년 5월 25일	주체문예론
30	173	조선녀류시가선 1	최영	• 1판 주체91(2002)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6월 25일	고전문학 (시)
31	192	조선녀류시가선 2	최영	• 1판 주체91(2002)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8월 25일	고전문학 (시)

순 번	통 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주제
32	197	문학연구론문집 4	엄영일, 오향숙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8월 25일	주체문예론 /해방 전 문학(소설)
33	208	문학연구론문집 5	한수은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8월 25일	주체문예론
34	211	향가해석	홍기문	• 1판 주체45(1956)년 12월 25일 • 2판 주체99(2010)년 8월 25일	고전문학 (시)
35	212	현대조선시문학연구	류만	• 1판 주체77(1988)년 8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8월 25일	현대문학 (시)
36	220	문학연구	장형준	• 1판 주체76(1987)년 8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8월 25일	주체문예론
37	236	조선중세의인소설사연구	류윤화	• 1판 주체96(2007)년 9월 14일 • 2판 주체100(2011)년 7월 25일	고전문학 (소설)
38	239	문학연구론문집 6	김철진 외 4명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9월 25일	주체문예론
39	261	조선중세평민문학연구	윤동일	• 초판 발행 • 주체100(2011)년 5월 5일	고전문학
40	262	문학연구론문집 7	강진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12월 25일	주체문예론
41	307	문학연구론문집 8	려원만, 김선영	• 1판 주체73(1984)년 9월 30일 • 2판 주체99(2010)년 12월 30일	주체문예론 /고전문학
42	309	조선영화사	김룡봉	• 1판 주체78(1989)년 4월 13일 • 2판 주체102(2013)년 1월 30일	주체문예론
43	326	우리 식 텁체적묘사	김상우	• 1판 주체93(2004)년 6월 15일 • 2판 주체102(2013)년 2월 28일	주체문예론
44	328	영화배우의 생활적연기	우영진	• 1판 주체98(2009)년 9월 30일 • 2판 주체102(2013)년 2월 28일	주체문예론
45	358	해방전 진보적희곡 연구	김용철	• 초판 발행 • 주체102(2013)년 3월 30일	해방 전 문학(희곡)
46	371	문학연구론문집 9	석금철, 길영수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12월 30일	해방 전 문학/ 고전문학
47	398	조선근대소설사	한중모, 심경섭	• 초판 발행 • 주체102(2013)년 6월 20일	해방 전 문학(소설)

순 번	통 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주제
48	40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사회과학원 주체문화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2(2013)년 6월 20일 	주체문화론
49	404	금강산기행문 ⁷⁸⁾	리용준, 정홍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판 주체91(2002)년 2월 5일 • 2판 주체102(2013)년 7월 20일 	현대문학 (기행문)
50	408	조선현대문학작품해설	류민 ⁷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판 주체76(1987)년 2월 26일 • 2판 주체102(2013)년 7월 20일 	현대문학 (소설)
51	423	향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태양청송의 메아리	리룡득, 서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2(2013)년 7월 20일 	해방 전 문학
52	426	주체의 음악예술리론	리룡득, 서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판 주체71(1982)년 10월 30일 • 2판 주체102(2013)년 7월 20일 	주체문화론
53	44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시대 문학령도업적	리현순, 백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판 주체101(2012)년 3월 15일 • 2판 주체103(2014)년 1월 20일 	주체문화론
54	445	금강산 국문시가선 ⁸⁰⁾ (개정판)	리용준, 정홍교, 길영수, 엄용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판 주체91(2002)년 2월 10일 • 2판 주체99(2010)년 12월 30일 	현대문학 (시) /고전문학 (시)
55	460	정악용문학 연구	김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3(2014)년 1월 20일 	고전문학
56	493	우리 식 고전음악	림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3(2014)년 10월 15일 	고전문학 (음악)
57	495	조선현대문학작품해설 (총서편 1)	고철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3(2014)년 10월 15일 	현대문학 (소설)
58	503	조선고전작가론 1	리성, 김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59	504	조선고전작가론 2	정홍교, 한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0	505	조선고전작가론 3	한인영, 김용철, 리현철, 길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1	506	조선고전작가론 4	한인영, 박길남, 김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순 번	통 권	제목	필자	발행 사항	주제
62	507	조선고전작가론 5	박길남, 최영, 리현철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3	508	조선고전작가론 6	박길남, 리현철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4	509	조선고전작가론 7	리성, 한인영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5	510	조선고전작가론 8	리현철, 김진국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고전문학
66	536	문학연구론문집 10	엄용찬, 리철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6월 20일	주체문예론
67	539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의 발전면모	리병간, 강은별	• 초판 발행 • 주체104(2015)년 10월 25일	현대문학
68	541	문학연구론문집 11	서재경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10월 25일	해방 전 문학
69	542	문학연구론문집 12	조웅철, 김선영	• 초판 발행 • 주체99(2010)년 10월 25일	해방 전 문학
70	559	문학연구론문집 13	문성렬, 김경식	• 초판 발행 • 주체105(2016)년 4월 30일	고전문학

※ 1. 표기: 제목, 필자 등 고유명사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름.

※ 2. 분류 기준

1) 시대 구분

- (1) 고전문학: 원시 - 조선시대까지
- (2) 해방 전 문학: 19세기 후반 - 1945년 해방 전까지
- (3) 현대문학: 1945년 해방 이후 -

2) 주제 구분

- (1) 주제의 장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세부 주제를 표기함.
- (2) 복수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연구서나 복합적 주제의 경우, 중첩적으로 다루어지는 쪽으로 분류함. 필요한 경우 '/' 표시 이후 부차적 주제를 제시함.
- (3) '문학사': 고전과 현대, 복수의 장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만 '문학사'로 분류.

78) 머리말에 『금강산총서』의 제10권으로 편찬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79) 머리말에는 류만, 박종원, 오정애, 김준규, 조유철, 김선려, 한철련이 집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80) 머리말에 『금강산총서』의 제9권으로 편찬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Abstract〉

The North Korean Literary Study Tendencies on the Period
Before Liberation of Korea Under the Regime of Kim, Jong-Il
and Kim, Jong-Eun

- Centered on the *Joseon Sahoegwahak Haksuljib* -

YEE, SUN KYUNG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orth Korean literary study tendencies on the period before Liberation of Korea. After the Kim, Jong-Il regime, the literary study tendency gradually became objective and liberated from the Juche ideology under the Kim, Il-Sung regime. The academic complete collection *Joseon Sahoegwahak Haksuljib* (2009-), which was projected to celebrate 100 years since the birth of Kim, Il-Sung and new era of North Korea, shows the current situation of literary study tendencies of North Korea.

In terms of the literary studies on the period before liberation of Korea, *Joseon Sahoegwahak Haksuljib* exhibits these three features. First, they emphasize the rol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t the creation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this because the Kim, Jong-Il and Kim, Jong-Eun regimes have required the support of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respect to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s from Kim Il-Sung since its foundation. Second, the theory of Juche Literature by Kim, Jong-Il became to ascend the canon when it comes to conduct research into Literature: one of the representative phenomenon is the emphasis of the genealogy of Realism Literature including Juche Realism Literature.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North Korea approves

* Lecture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the modernity of Bourgeois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e literature of Yi, Kwang-Su is recognized its value as a model novel of 1910s, especially his novel *Myjeong* (Heartlessness) and *Gaecheokja*(Pioneer).

Key Words : Joseon Sahoegwahak Haksuljib, North Korean Literature, Literature before Liberation of Korea, Modern Literature, Kim, Jong-II, Kim, Jong-Eun, Juche Literature,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Realism Literature, Bourgeois Literature, Modernity, Yi, Kwang-Su